

刹那

The Ephemeral Moment

순간을
품다

정신회무용단

Jung Shin Hye Dance Company

2010년 1차 미술경쟁심사대상 수상작인 정지영



정신혜 무용단
2010 창작춤 레퍼토리 Ⅲ



살가움...

〈찰나, 소나기를 품다〉는 참으로 살갑다.

살가움은 굳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도 몸짓에서 표정에서 그리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친밀함만으로도 편하고 따뜻하다. 이 작품에는 현대를 살아가며 잠시 잊고 살았거나, 혹은 잠시 잃어버렸던 그 정서를 다시금 품에 안도록 해 준 '살가움'이 가득 담겨있다. 그런 살가움이 객석에 잘 전해진 때문인지 '2009년 무대제작지원사업 수혜작'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0월에 무대에 올려지고, 이후 사후 평가에서 또 다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2010년 다시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미 한 번의 시험무대를 통과하고, 다시금 공연되는 작품들에는 늘 나름의 고심이 있다. 초연 당시의 몇몇 미진함을 어떻게 매만지고 또 어떤 빛깔로 갈무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번 '데피토리 공연'은 그래서 '아련한' 유년의 순수를 보태고자 한다. 유년기를 지나며 기억마저 흐리게 변색된 그 시간 속에 차곡이 개켜있던 순수를 하나하나 기억 너머로 끄집어내는 몸짓을 보낸다.

아련함...



무대예술은 똑같은 작품을 똑같이 무대에 올려도 매번 느낌이 다르고 매번 감동의 질량이 다르다. 〈찰나, 소나기를 품다〉는 더더욱 그러하다. 사람들 각각의 성장통이 기간과 주기, 빈도와 통증이 저마다 다르듯 익히 알려진 줄거리를 텍스트로 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은 객석 전달에서 그만큼의 다양성을 지닌다. 그래서 그림다. 지난 초연 당시 맛보았던 객석의 반응과 울림과 잔향 때문이다. 그 '그리움'으로 하여 여전히 힘들고 부단한 시간들을 연습실에서 보낸다.

그리움...

작품 의도

I n t e n t i o n

‘찰나(刹那)는 기억을 도색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모든 것은 순간이다.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가공해 놓은 기억마저 때론 변질되고 퇴색되어 본질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힘들 때가 있다. 달리 말하면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순간이 모두 제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찰나’의 경험이 기억을 도색하고 때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삶은 찰나의 사금파리이다’

산다는 것은 매순간순간이 조금씩 얹힌다는 것이고, 순간의 경험과 기억이 각각의 조각이 되어 하나를 이루기도 하고 다시 군소집단으로 나뉘기도 한다. 결국 찰나의 사금파리로 삶은 지탱되고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표현하는 ‘찰나(刹那)’는 그렇게 삶을 이루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제 감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이고 발산이며, 몸으로의 반응, 힘듦과 들뜸의 절정을 치달던 갖가지의 반응들이기도 하다. 내 몸에 대한 반응과 내 감정에 대한 표현, 그리고 순간 표현되고 순간 반응하는 그 발산을 ‘찰나’라 생각하며 이 작품을 꾸리게 되었다.

The moment colors our memory giving it meaning.

Everything exists in moments. Memory made by accumulated instanc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s sometimes changed or discolored. So sometimes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its true nature. In other words, our past moments and the coming moments do not always have their own meaning by themselves. The experience of the present moment paints your memory and sometimes gives a new meaning to our experience.

Life is potsherds of the moment.

Life means each moment piled upon little by little. Experience and memory of the moment are broken into tiny pieces or divide into small groups or are lumped together as one. Eventually, the potsherds of moments sustain life and keep the balance of it. The moment presented in this work is a depiction of the various intense emotions of life. Therefore, it is a specific expression and a bodily reaction and a climax of exhaust and excitement. I think the moment is the response of my body, an expression of my emotions and the immediate reactions. It is after those experiences that I have prepared this performance.



안무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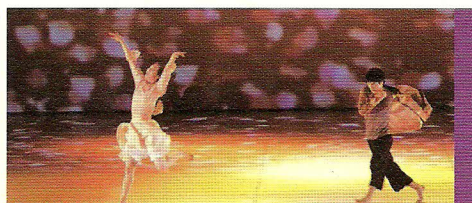
돌아보면 유년의 기억 중 잊히지 않는 몇몇 단상(斷想)들과 또 몇몇의 감상들이 있다. 하룻길 유난히 하얗게 부서지던 한여름의 포말(泡沫)과 산등성을 타고 흐르던 흐린 날의 구름안개... 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던 바삭 마른 교정의 플라타너스 이파리 같은 감성들 말이다. 그 기억들 중 늘 먼저 떠오르는 것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입(移入)되어 나를 아프게 했던 '소나기'였다. '소나기'는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웠으며 또 가장 애잔한 이야기였다. 짧은 순간에 마음을 건네고, 몇 번의 만남으로 서로에게 동화되어, 감정을 입을 새도 없는 짧은 헤어짐은... 제목마냥... 난데없는 소나기마냥 너무도 '찰나'에 스쳐지나간 유년의 아련하고 애뜻한 간접의 경험이었다.

단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모든 줄거리를 함축시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익히 알려진 '황순원'의 소설을 무대에 올린다. 돌아보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또한 내게 남겨진 것과 떠나간 것의 기억들이... 각각의 조각으로 남겨져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음을 새삼 깨달아버린 지금... 너무도 짧았던 그 찰나의 순간들이 만들어낼 영원을 매만지며 오늘 이렇게 '소나기'를 품는다.

When we look back on our childhood, there are several unforgettable images and emotions. The white bubbles of clouds in a sultry summer day. The mist floating along a mountain ridge on my way from school. The rustling plane tree leaves under my feet in a dry school yard. But at the top of my list of vivid memory is a novel "**A Cloudburst**", which I identified with greatly.

"A Cloudburst" was the most beautiful and saddest of my childhood memories. It was a most tragic story. The fleeting heart-to-heart moment. Rapidly growing empathy for each other. And the abrupt farewell without the revelation of their true feeling towards each other. My vicarious experience of meeting and parting. All these events occurred so fast like a cloudburst.

I prepared an interpretive performance of Hwang Sun-won's "A Cloudburst", which is so well-known to Korean youngsters that its story can be summarized in only a few sentences. Looking back on old times, all the meetings and farewells, I realize that many memories have remained. Those remained form one crystal. I'm straining to touch the eternity made by the many ephemeral moments, embracing the cloudburst.



작품 P r o g r a m 구성

prologue.

시간에서 흘러...

처음과 마지막은 사실 없다.
처음이라 여겼던 시점만 있고
마지막이라 손을 댄 그리움들만
뽀비우스의 띠처럼 흐르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처음이건 마지막이건
시간의 카테고리 안에서 흘렀을 뿐이고
거슬러 오르려 하지 않아도
시간은 떠돌 만들며 유유히 내게로 흘러왔던 것이다.

In the River of Time

In the river of time
no beginning nor end
with longing I reach for
the lingering last moment.

in the river of time
all drifted toward me
I stay in the river
all drifted toward me.

scene.2 아로 새긴...

돌아보면
가장 아름다웠고
또 가장 순수했을...

얼굴을 어루만지던 바람과
나지막하게 숨 쉬던 숲의 호흡과
먼 길 떠나느라 부산한 개울의 왁자함까지...

모두 추억이란 미명하에
아로 새겨진 찰나의 파편들이었다.

A Shard of Memory

Looking back into
those tender years,
the innocent moments,

the caressing breeze
of the forest's whisper,
and the gurgling stream

it's all coming back to me,
as a shard of memory.

scene.1 그리하여 젖다...

마음이 젖었다.
면발치의 거리만큼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 무심했던
그 마음이 젖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화들짝 놀랐던 개울 마냥
그렇게 파장이 일고
찰나의 순간은 가슴을 뚫어
기억이란 이름으로 내 안에
견고한 제 자리를 잡았을 뿐이다.

My Heart was Touched

My heart was touched,
without a warning
through the indifferent distance
My heart was touched.

a ripple on the stream
by a tiny pebble
ringing out like a shot
from your dainty hand
wedged in my heart
in the name of memory.



scene.3 소나기...

거센 빗발로 우르르 쏟아지던
한 뿔 위 먹구름과

개울을 금세 넘치게 하던
장대 같은 소나기 모두는...

마르고 푸석한 잔기침처럼
온몸을 꿰뚫어 하던 몸살처럼

지독한 성장통으로 남겨진
매 시간과 매 순간의 내 흔적들이었다.

A Cloudburst

The stinging rain
from a wisp of black cloud

the overflowing stream
during the torrential cloudburst

those dry wheezing coughs
of my early youth,

all those growing pains
permeated my every memory.



scene.5 그리고 찰나...

이제는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찰나였음을...

그리고 또 알아버렸다.
지금 이 시간 또한 찰나일 뿐임을...

그래서 나는 늘 손을 움켜쥐고 있다.
어느 조각 하나도 쉬 놓을 수 없었던 까닭에...

That Ephemeral Moment

Now I know
those were ephemeral moments.

and I know
this will pass fleetingly

time slips through
my clenched hand.

scene.4 내가 앓다...

왜 어렸을 땐
늘 홍역을 앓았을까... .

어른처럼 커지기 위해
몸이 고단하게 움직여서라던
수숫대 같은 허망한 애기들과

후드득 퍼붓곤
금세 그친 소나기를 따라
저 하늘로 구름마냥 올랐을 거라
간절하게 바라던 그 믿음들을

가슴 한켠에
하나씩 하나씩 봉인하고 있었다.

I Ached

How I ached
without apparent reasons.

I was told
by old wives
that's because I was always up and about

like a dispersing cloud
after a cloudburst

I also ached to arise
up and away

I put away my aching
in the deepest recesses of my heart

Epilogue 소나기를 품다...

사실 마지막은 없다.
처음이 채 끝나지 않았음으로....

그래서 난 마지막을 모른 채
늘 그 시간 그 곳에서
정물이 되어 그리움 하나를 곱씹는다.

나는...
소나기를 가슴에 품었을 뿐이므로....

in the cloudburst

there's no end
'cause there's no beginning.

in the river of time
I have stayed motionless
like a object in a still life.

savoring the ephemeral moment
in the cloudburst

정 신 혜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자
현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한국무용기록학회 상임이사
정신혜무용단 예술감독

2008. 09 제 7회 부산예술상 젊은예술가상
2007. 12 제 5회 봉생청년문화상
2003. 03 제 5회 한국안무가페스티벌 동상
2002. 06 제 27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문화관광부장관상
2001. 09 제 10회 전국무용제 은상
2001. 07 제 10회 부산무용제 대상
2000. 12 제 2회 전국차세대안무가전 최우수상
2000. 10 제 50회 개천한국무용제 특장부 최우수상
1998. 12 98 신인 안무가전 최우수 안무가상

대표 안무작

2009 「불은한 윤회 輪回」 「비, 보다」 「찰나, 소나기를 품다」
2008 「산산산散散」 「욕망이 진리에 반反하다」
2007 「목木,요일의 그늘」
2004 「고래무덤」 「검은머리」 「Flow」
2002 「푸른장미」 「山」
2001 「決」 「오브제(objet)를 위한 오부제(五副題)Ⅱ」
2000 「결...結」
1998 「빠를, 그리고 또 빠를(parol)」
1997 「오브제(objet)를 위한 오부제(五副題)」
1996 「빛을 여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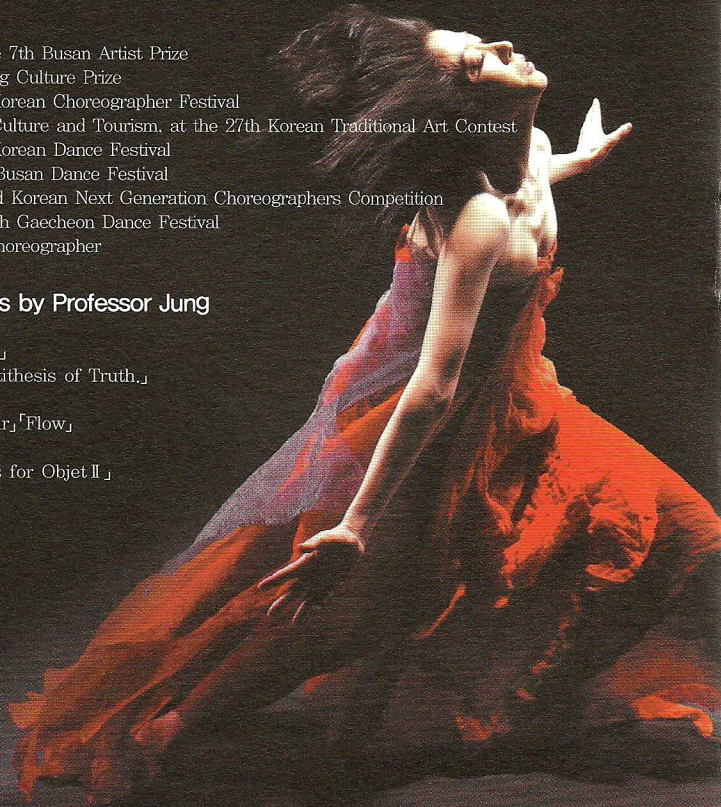
Jung Shin Hye

Inheritor of Buddhist Dance, a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27,
Instructor of a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97 <Salpuri Dance>
Professor of Department of Dance, Art College, Silla University
Choreographer, Jung Shin Hye Dance Company
An executive for Korea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2008. 09 Prize of young artist, The 7th Busan Artist Prize
2007. 12 The 5th Bongaeng Young Culture Prize
2003. 03 Bronze prize of the 5th Korean Choreographer Festival
2002. 06 Prize of the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at the 27th Korean Traditional Art Contest
2001. 09 Silver Prize of the 10th Korean Dance Festival
2001. 07 Grand Prize of the 10th Busan Dance Festival
2000. 12 Excellent Prize of the 2nd Korean Next Generation Choreographers Competition
2000. 10 Excellent Prize of the 50th Gacheon Dance Festival
1998. 12 Prize of the 1998 New Choreographer

Major Choreographed works by Professor Jung

2009 「Disquiet Reincarnation 輪回」
2008 「Into Pieces」 「Greed, the Antithesis of Truth」
2007 「Shade of Thursday」
2004 「Tomb of Whales」 「Black Hair」 「Flow」
2002 「Blue Rose」 「Mountain」
2001 「Gyeol(Burst)」 「Five Subtitles for Objet Ⅱ」
2000 「Gyeol(End)...結」
1998 「Parol, and again paro」
1997 「Five Subtitles for Objet」
1996 「Ways to Open Up Light」



- 2010 04 2010 정신혜무용단 특별기획공연「춤, 사계」-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중국 상해정협 대극장
01 정신혜무용단 2010 전통 홀춤 「우리춤, 짧은 시선으로 바라보다」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2009 11 봉생20주년 문화상수상자 특별공연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0 제2회 명무전 및 제6회 김해량선생 추모공연 - 마산3.1아트센터 대극장
10 2009 정신혜무용단 창작춤 「찰나, 소나기를 품다」-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10 제20회 대학무용제「비,보다」-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7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창도149주년 기념공연 -FESCO HALL, 중앙광장 특설무대
06 서울남산국악당 수요상설공연「구름위에 발 내딛고」-서울남산국악당
06 2009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고성엑스포 특설무대
05 정신혜무용단 New wave serise III 「최지은의 춤」-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
05 2009 조선통신사축제 개막공연 -부산용두산공원 특설무대
04 2009 봄날, 우리 춤 속으로 -서울남산국악당
04 2009 고성마당춤 재전 -고성마당춤 야외무대
04 정신혜무용단 창작춤 레퍼토리 II 「접점 接點」-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
- 2008 10 제19회 대학무용제「육방이 진리에 반反하다」-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9 정신혜무용단 New wave serise II 「류선아의 춤」-대구봉산문화회관 소극장
09 정신혜무용단 전통춤 레퍼토리 V 「통영바다에 춤을 풀다」-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08 제4회 부산국제무용제「산산散散히」-부산광안리 특설무대
08 2008춘천아트페스티벌「산산散散히」-춘천어린이회관 야외극장
03 정신혜무용단 전통춤 레퍼토리IV「봄.춤」-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 2007 12 정신혜무용단 New wave serise I 「박혜경의 춤」-부산민주공원 소극장
12 정신혜무용단 전통춤 레퍼토리III「표정 表情」-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
11 사전문화회관 초청공연「우리 춤,우리 가락」-사전문화회관 대극장
10 제18회 대학무용제「목木, 요일의 그늘」-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9 조선통신사400주년 기념공연「에도입성 성신교린의 축제」-동경 히비야 대극장
09 정신혜무용단 전통춤 레퍼토리II「수려 秀麗」-대구문화회관 대극장
09 정신혜무용단 전통춤 레퍼토리II「수려 秀麗」-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2006 10 제9회 서울세계무용축제「옛춤, 새얼굴」-서울LIG 소극장
09 FALL for DANCE FESTIVAL「Heaven and Earth」-뉴욕 CITY CENTER
09 제29회 부산무용예술제「살·풀이 춤」-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9 정신혜무용단 전통춤레퍼토리I「다섯 빛깔 우리춤」-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2005 10 제5회 서울국제공연 예술제 「고래무덤」-서강대학교 메리홀
- 2004 10 제3회 대구·부산·광주지역 춤 작가전 「검은머리」-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8 정신혜무용단 창작춤 레퍼토리I 「깨어나 춤추다」-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1 2004 정신혜무용단 창작춤 「산 山」-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01 제9회 바늘레 국제안무가 페스티벌 「고래무덤」-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2003 10 무용뮤지컬 「이브의 선택II」-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9 제5회 전주산조축제 「즉흥춤 산조」-전주 한옥생활 체험관
08 2003 춘천무용축제 「빠를, 그리고 또 빠를(parol)」-춘천어린이회관 야외무대
06 제11회 창무국제예술제 떠오르는 아시아의 안무가「빠를, 그리고 또 빠를」-창무포스트극장
05 제2회 국제 즉흥춤 페스티벌 -경성대학교 정보소극장
03 제5회 한국안무가 페스티벌 「푸른장미」-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2002 12 2002 정신혜무용단 창작춤 「산 山」-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9 제1회 부산공연예술제 「푸른 장미」-금정문화회관 소극장
08 부산국제환경예술제 개막초청공연 「빠를, 그리고 또 빠를」-부산민주공원 소극장
08 동해 바다무용축제 「결 決」-강원도 동해시무용협회 초청
07 제11회 2002부산무용제 축하공연 「결 決」-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7 CID 세계음악과 만나는 우리춤 V 일본「푸른 장미」-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2001 12 2001 정신혜무용단 창작춤「오브제를 위한 오브제(五副題)II」-부산민주공원 소극장
09 제10회 전국무용제 「결 決」-충남학생회관 대극장
08 2001부산바다무용제 「결 決」-부산다대포 야외공연장
07 제10회 부산무용제 「결 決」-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2000 12 제2회 전국 차세대 안무가전「결.., 結」-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1999 11 젊은문화축제 99 場「빠를, 그리고 또 빠를(parol)」-서울동숭아트센터 대극장
- 1998 12 98 신인안무가전 「빠를, 그리고 또 빠를(parol)」-서울씨어터제로 극장
- 1997 10 정신혜의 춤 「오브제(objet)를 위한 오브제(五副題)」-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1996 11 96 춤과 시의 만남 「종소리」-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0 개천절 문화공연「개천무 開川舞」-대전엑스포 야외공연장
07 부산여름축제 「빛을 여는 길」-부산해운대 야외공연장

정신혜 무용단

since 1997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지난 1997년 창단한 '정신혜무용단'은 한국 춤의 전통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전통의 보전과 계승, 그리고 컨템포러리 창작 작업을 통한 수많은 작품과 전통춤 레퍼토리 개발을 통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춤 언어와 공연예술의 감각적 메시지들을 발견해 내고 있다. 특히, 창단이후 한국 무용계의 발전과 대중성 확보와 함께 관객지변확대를 선도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명실상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언론과 문화예술계는 물론, 관객들로부터 매 공연마다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다.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감독이자 안무자인 정신혜 교수는 한국 전통춤의 거인이신 우봉(宇峰) 이매방(李梅芳) 선생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이수하고, 제97호 살풀이춤을 전수한 젊은 전통춤의 지킴이이며, 제7회 부산예술가상, 제5회 봉생 청년문화상, 제10회 부산무용제 대상, 제10회 전국무용제 은상, 제27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문화부장관상, 제50회 개천한국무용제 특장부 최우수상 등 전통춤과 창작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21세기 우리 무용계의 내일을 이끌어 나가는 무용가로 인정받고 있다.

평단과 관객들의 반향

또한 '정신혜무용단'은 1998년 신인안무가전 대상 수상작인 <빠를... 그리고 또 빠를>을 시작으로 전국무용제 <결(決)>, CID 일본음악과의 만남 <푸른 장미>, 바늘레국제안무자페스티벌 <고래 무덤>, 창작레퍼토리 작업인 2005년 <깨어나 춤추다>와 2009년 <접점>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04년 서울시무대제작지원금을 받아 '예술의전당'에 올렸던 <산>으로 평단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시 안무자의 삼십대 초반이라는 나이는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하는 바 화제가 되었다. 그 후 2008년 8월 제4회 부산국제무용제에서는 <산산히>로 우주의 생성과 해체를 몸으로 보여줘 극찬을 받았다.(부산일보 2008.8) 또한 2009년에는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모티브로 삼아 춤과 영상으로 풀어낸 작품 <찰나-소나기를 품다>에서 창의적이고 세련된 춤으로 탁월한 안무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얻었는데 이 어, 금년 1월, 기획공연<우리 춤, 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를 통해 전통춤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각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쉬지 않고 있다.

세계무대 진출과 우리춤 재발견 작업

2006년 이후 전통춤의 무대화, 현대화 등 대중에게 새로운 각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하였던 '전통춤 레퍼토리 시리즈'는 부산과 대구, 그리고 서울과 진도, 통영에서 각각 <수려>와 <표정>, <봄,춤>, <통영바다에 춤을 쏜다>, <우리춤, 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 <춤,사계>로 관객과 만났다. 이들은 '전통의 고유한 색채와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새로운 양식의 전통춤 공연', '전통춤의 젊고 활기찬 걸음'(댄스포럼2008.01)이라는 지지를 받았다. 한편 동경 히비야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공연'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창도 149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현지 공연을 통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일, 한·러 양국 간의 문화 예술 교류에 공헌을 하였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춤,사계> 중국 상하이 초청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한국 전통춤을 대표하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금년 8월에는 일본 대마도와 시모노세키 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

Jung Shin Hye Dance Company since 1997

Leader of the young generation of dancers

The < Jung, Shin-hye Dance Company>, organized in 1997 has been acknowledged by critics as a leader of younger generation of dancers. With its repertoires ranging from creative works to traditional Korean dancing, the company has been explored both the traditional and modernized aspects of Korean dance. Their unique but universal interpretation of dancing has earned them tremendous interests and supports in every one of their performances.

Tradition and Creative Dancing

Professor Jung, Shin-hye, an art and dancing director of the dance company, has inherited the Buddhist Dance, a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27, from Ubong Lee, Mae-bang and has been instructed Salpuri Dance (a dance for casting out evils), a Major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97. As a spearhead of traditional Korean dance, s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and prizes such as The 7th Prize of Busan Artist, The 5th Cultural Prize of Busan Youth, Grand Prize of the 10th Busan Dance Festival, Silver Prize of the 10th Korean Dance Festival, the Prize of the Minister of Culture of the 27th Korean Traditional Art Contest, the Excellent Prize of the 50th Gaecheon Korean Dance Festival, etc.

Arousing critical acclaims in the circle of critics

The Jung, Shin-hye Dance Company also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1998 New Dancing Directors Competition with the performance of <Parol, and again Parol>, participating in the Korean Dance Festival with the performance of <Gyeol (bursting)> in 2001, collaborating with CID Japan music band in 2002, performing <Tombs of Whales> at the Bagnole International Dance Producers Festival in 2004, and presenting a series of creative repertory works: <Wake Up and Dance> in 2005 and <Point of Contacts> in 2009. In particular, she received critical acclaims in her early thirties when she staged <The Mountain> in the Seoul Arts Center funded by the subsidy for stage production of Seoul as a dancing director. In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ugust 2008, the company was highly praised for <Into Pieces>, 'showing the creation and dissolution of the universe' (The Busan Ilbo, August 2008)

Contribution to exchange of culture and art

The Traditional Dance Repertory Series have tried to reach the masses with new an approach by staging modernized Korean traditional dance since 2006. They have been performed in Busan, Daegu, Seoul, Jindo and Tongyeong under the name of <Suryo (beautiful)>, <Expression>, <Spring, Dancing>, <Releasing Dance Off the Coast of Tongyeong>. They were praised as a 'Performance of traditional dancing in a new style with unique colors and original form well preserved' and 'Young and brisk walk by traditional dance' (Dance Forum, January, 2008). The Joseon Tongsinsa(Diplomat) 400 anniversary memorial performance performed at the Hibiya Art Center, Japan and a local performance celebrating the 149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Vladivostok harbor in Russia spread the beauty of Korean culture and contributed to the exchange of culture and art between Korean and the two nations respectively. In an effort to promote Korean traditional dance, their <Dance, four seasons> was showcased in Shanghai, China when they were invited to perform in the celebration of 2010 Shanghai Expo. Now they are preparing for this August's performances in Tsushima and Shimonoseki, Japan.

세련된 색채감으로 그린 물의 이미지와 인생

프론티어라는 인상을 심은 정신혜 작품의 맥은 물의 이미지에 있다. 『소나기』라는 가느다란 정서의 줄기를 60여분의 장편으로 무용작품화하기는 사실 소재 면에서 어려운 것이다. 단순한 이야기의 줄기에 안무자는 물의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그리며 과거의 순간을 포착해 증폭시켜 결국 인생을 그렸다. 무대는 색채감이 진다. 보랏빛의 영롱한 무대에서부터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과 노랑, 연두빛의 의상으로 무대변화를 꾀한다. 소나기가 내리고 물위에 빗물이 떨어지는 파장들이 몇 장면 번주되면서 영상으로 펼쳐지고 무용수의 움직임이 때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정적으로 가라앉히기도 한다. 정신혜는 열정적인 춤사위로 무대를 장악하는 강한 안무가이면서 무용수이다. 안무는 물론 자신의 춤을 폭발적인 에너지로 끌어왔다. 이번 작품은 그녀의 춤세계에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듯싶다. 돌다리, 개울물 등 반 추상의 그림 위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여성 군무진의 절제된 춤사위가 내려앉는다. 잔잔한 드라마를 그녀는 대작화하는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며 그 시각적인 변주를 통해 그녀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무용평론가 김경애(金敬愛) (댄스포럼, 2009. 11)

만났다..놓쳤다.. 다시 만났다. '소나기' 를...

신라대학교 정신혜교수가 새 작품 <찰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정신혜 특유의 강력한 무대장악력과 전통베이스 위에서 뿜어내는 창의적 움직임이 이번엔 어떻게 변할까"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막이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객석은 쉽게 작품의 전반부로 스며들며 작품에 몰입하고 호응할 수 있었고, 정신혜는 이번공연에서 공을 많이 들인 영상과 군무로 극적 효과를 높였다. 이렇게 잘 차려진 배경을 엮고 소녀 역의 '김예리'와 소년 역의 '허종규'는 이인무 또는 군무 속에 섞이는 춤을 통해 작품을 생기 있게 이끌고 갔다. 전반부의 절정을 쳤다고 볼 수 있는 천둥과 소나기 파붓는 장면과 죽음의 기운이 소녀를 감싸는 장면은 구성과 연결도 자연스러웠고 속도감도 뒤를 받쳐줘 인상 깊었으며,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나이가 들어 늙어버린 소년으로 출연한 고성오광대 예능보유자 '이윤석' 선생의 허튼 춤이었다. 세월이 지난 뒤 과거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텅 빈 듯한 춤, 깨달은 사람의 경쾌함과 미련을 떨치지 못한 이의 처연함이 묘하게 어우러진 춤사위를 보여주면서 중심을 잡고 작품을 맺었다. 작품 전반을 장악하고 한국 춤의 기반 위에서 치밀하게 작품을 전개하던 기존의 정신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본 듯하다. 무엇보다 나를 포함한 관객에게 『소나기』의 애잔한 추억을 춤으로 되살려줬다는 점에서 반갑고 뇌리에 남는 작품이었다. '김예리'는 저 역할에 맞는 다른 춤꾼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

국제신문 문화부기자 조봉권 (월간 몸, 2009. 11)

